

출장보고서 11-03

“Korea-Mongolia Business Forum”

출장기간: 2011. 06. 06 ~ 06. 09

출 장 지: 몽골 울란바토르

출 장 자: 채욱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出張 概要

1. 出張 목적

- 매일경제 주최 몽골 포럼, “The Rise of Mongolia & One Asia: Korea-Mongolia Business Forum”이란 제하의 국제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아 제1회의 Speaker로 참여하여 발표함

2. 出張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3. 出張 기간

- 2011년 6월 6일~6월 9일 (2박 4일)

II. 主要 活動 事項

1. The Rise of Mongolia & One Asia: Korea-Mongolia Business Forum 국제회의 개요

가. 일시 : 2011년 6월 8일(수) 오전 9시- 오후 1시

나. 장소 : 몽골 칭기즈칸호텔

다. 참석자

- 한국측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정장선 한-몽의원 친선협회 회장, 채욱 KIEP 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최종태 포스코 사장,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김신중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 등 약 40명, 몽골 현지 한국 공관 및 기업측 정일 주몽골 한국대사, 고형권 몽골재무부장관 자문관, 김영석 광물자원공사 몽골사무소 소장, 황

재홍 대한항공 울란바토르 지점장, 권오석 경북 해외농업타운 미래드림농장, 선진그룹 이석재 대표, 손동식 KPMG MN LLC. 이사, 김성권 가울리 투자증권 대표 등 30여명, 몽골 정부측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총리, 하쉬출룬 몽골국가발전혁신위원장, 삼부 뎀베렐 상공회의소 회장, 바투시그 몽골무역투자청 부의장 등 15여명, 기타 몽골 현지 기업인 및 언론인 등 165 여명 참석(포럼에 총 250여명 참석)

라. 주요 내용

□ 주요 의제

- Session 1: 원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에 관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재영 유럽팀장이 발제를 하였음.
 - 이재영 팀장은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한 이후 지난 21년 동안의 양국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표자료 참조)
 - ※ 보다 구체적으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 몽골의 경제현황과 발전전망, 몽골의 대외경제관계 및 몽골과 주요국간의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한-몽 경제협력 현황 및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함.
 - 이어진 토론에서 알리셔 알리(Alisher Ali) 유라시아 캐피털 회장은 2011년에 몽골의 주가지수가 2배 넘게 올랐으며,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몽골 증시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밝힌 뒤, 아직 몽골 영토의 6%밖에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몽골 광물자원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강조함.
 -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몽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형 플랜트, 건설업, 석유화학 발전시설 등에 대한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몽골이 선진 금융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협력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몽골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B에서 금융조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선(先)금융, 후(後)발주 시스템이 중요한 만큼 EDCF 자금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삼부 뎀베럴 몽골 상공회의소 회장은 몽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최근 몽골정부가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개혁에 착수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또 “그린 아시아 (Green Asia)”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몽골이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특히 삼부 뎀베럴 회장은 현재 4.5%인 몽골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는 친환경 발전 방향으로 갈 것임을 언급함.

- Ssession 2: 2011~2015년 기간 동안의 몽골 중기 경제발전 전망(자원개발과 SOC 투자를 중심으로)에 대해 하쉬출룬 몽골국가발전혁신위원회 (NDIC) 위원장이 발제를 하였음.

○ 하쉬출룬 위원장은 몽골의 인구구성 변화, 정치적 안정성, 경제성장 요인, 광물자원 개발 정책, 인적자원 개발, 산업단지 건설 계획 등 몽골의 중기 국가발전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 등 몽골이 당면한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하쉬출룬 위원장은 몽골이 중기적 국가발전 우선순위를 친환경적 광물자원 개발과 중공업 기반 구축, 산업화 정책 수행 및 농업 개발, 인프라 개발(신공항 건설, 천 킬로미터의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인적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개선, 민간부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함.

○ 채욱 KIEP 원장은 자원 부유국이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며, 발전 로드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경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김신중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이 그동안 몽골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두 차례에 걸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 컨소시엄(10개 기업 참여)이 러시아(철도공사), 일본(4개 종합상사)과 함께 몽골의 '타반 톨고이(석탄광산)' 광산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몽골의 자원이 개발되더라도 원활한 수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광산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Package)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함. 몽골의 경우 같은 내륙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보다 수송비가 2배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몽골 내부의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이웃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SOC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어출호약 몽골무역투자청 부청장은 몽골이 1993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지금도 몽골 정부가 법적,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함.

- 박궁래 롯데건설 전무는 몽골에 대한 SWOT 분석을 제시하면서, 몽골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SCO 확충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평가

- 이번 한국-몽골 비즈니스 포럼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들이 몽골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라 구축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지원을 한 포럼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됨.

o 더욱이 한국과 몽골 양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25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포럼이란 점에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러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될 경우, 양국간 우호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됨.

- 끝 -